

투데이 칼럼

전북발전의 관문, 새만금 신공항은 반드시 건설돼야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1일 새만금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전북 도민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판결을 내려 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법적 절차에 따라 내려진 결과라 하나, 이번 판결은 전북의 미래를 바라보는 수많은 도민에게 깊은 상실감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왜냐하면 새만금 신공항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전북발전의 상징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동력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동서남북에 국제공항을 갖추고 있다. 인천과 김포는 수도권, 무안과 양양이 각 지역의 국제 교류를 담당한다. 그러나 오직 전북만이 국제공항이 없는 불모 지역으로 남아 있다.

이는 단순히 공항이 없어 다른 공항을 이용한다는 불편의 문제가 아니다. 전북은 국제적 산업과 문화 교류에서 근본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뜻이다.

국제공항이 없는 전북은 기업 유치에 불리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하기 어렵다. 외국인이 손쉽게 '찾아오기 힘든 지역'이라는 낙인은 곧 전북의 지역 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진다. 국가 균형발전을 부르짖으며 수십 년을 기다려온 도민 입장에서, 이번 판결이 가슴이 아프고 땅을 치며 통탄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새만금은 단순한 간척지가 아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 간척지이며, 대한민국이 미래를 설계할 글로벌

산업·에너지·문화의 전진기지다.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국제 투자유치, 첨단산업단지, 관광·레저벨트 등 국가적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국제공항 없는 새만금 개발은 마치 항만 없는 배와 같이 쓸모가 없다.

물류와 인적 교류가 원활하지 않다면, 세계적인 기업과 투자자는 새만금을 외면할 수밖에 없다. 항만과 도로만으로는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없다. 하늘길이 열려야만 새만금은 진정한 국제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 따라서 새만금 신공항은 선택이 아니라 전북에는 반드시 개설되어야만 하는 절대적 필수 조건이다.

특히 현대와 같이 분초를 다투며 빠르게 움직여야만 하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최근 전북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계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축제가 아니라, 세계의 젊은이와 국민들이 모이는 국제 교류의 장이다. 선수단과 관람객이 직접 찾아올 수 있는 관문 공항은 개최지 선정의 기본 요건이다.

만약 전북이 국제공항 없이 전주 하계올림픽을 유치하게 된다면, 세계인들이 다른 지역을 경유해 전주와 새만금을 방문해야 한다. 이는 개최지의 이미지와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일하게 된다.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의 꿈을 현실로 만들려면, 새만금 신공항은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

이번 판결에서는 '안전'과 '자연환경 파괴' 그리고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 주었다. 물론 환경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다. 그러나 과학적 보안책과 합리적 대안을 통해 공항 건설과 환경 보존은 공존할 수 있다. 실제로 세계 각국은 환경친화적 공항을 운영하며, 탄소 중립과 생태 보존을 동시에 실현하고 있다.

경제성 논란 역시 전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계산일 뿐이다. 전북의 경우 단순한 여객 수요뿐 아니라, 새만금 개발과 올림픽, 국제 산업 교류를 위한 전략적 필요성이 훨씬 더 크다. 경제성은 숫자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 비전을 포함해 평가해야 한다.

이 만 호

본보 정치부장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9월 30일 미국 정부폐쇄 불가피”



척 슈머 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1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왼쪽)와 함께 기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슈머 대표는 이날 공화당이 민주당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이달 말 미 정부가 폐쇄될 위험을 무릎써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팔레스타인 주민들 “남으로, 남으로”



13일(현지 시간)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에 대피령을 내린 뒤 가자지구 북부를 떠난 팔레스타인 피난민들이 짐을 싸 들고 남부로 향하는 해안 도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다.

사설

어느 4代째 경찰 가족

지난해 7월 경찰에 임용된 박준경(22) 순경은 4대째 '경찰 집안'이다. 증조부는 제주경찰서 소속으로 임용돼 6·25 전쟁 때 순직했다. 할아버지는 제주경찰청에서 경비·교통과와 112상황실에서 근무했다. 아버지도 같은 청에서 여성청소년 업무, 경리계, 보안계를 맡았다. 박 순경이 임용되면서 경찰 내부에선 "4대째 이어지는 경찰 가문이 탄생했다"며 축하했다.

박 순경은 어렸을 때 아버지 직장을 따라가 본 뒤 경찰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산더미 같은 서류, 낯선 보안 업무, 영화 속 007 가방 같은 장비들을 보면서 '경찰이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하는구나, 나도 국가를 위해 이 일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친 그는 대학 입학 직후 휴학계를 냈다. 2020년부터 경찰 공무원

응시 자격에 병역 제한이 없어지면서 경찰 시험에 도전한 것이다.

합격 소식을 전했을 때 부모님이 모두 기뻐하셨다. 하지만 면접을 일주일 앞두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많이 아쉽다고 했다.

첫 근무지는 서울 서대문경찰서 신촌지구대였다. 대학가 특성상 성범죄, 폭행 사건이 하루에도 수십 건 들어왔다. 여성에게 악물을 몰래 먹이려는 30대 남성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현장에 출동해 수사를 진행했다.

피의자는 처음에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근거로 집요하게 추궁하자 결국 자백했다. 올해 4월부터는 서울청 5기동단에서 교통 업무를 맡았다. 집회 차량 통제, 키보드·자전거 안전 단속 등을 담당하고 있다.

전주 덕진중 고(故) 조정희 제자사랑

중학교 선생님이었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장학회를 만들어 매년 해당 중학교에 장학금을 지급해 온 이들의 사연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어머니가 재직하던 학교 제자들에게 14년째 사랑의 마음을 전달해 온 주인공은 바로 오성현씨다.

오성현씨는 지난 2011년 8월 당시 전주덕진중학교 국어 교사였던 어머니 조정희씨가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어머니 성함을 딴 '조정희 제자사랑 장학회'를 설립했다.

그는 어머니의 뜻을 어가기 위해 장학금과 도서 구입비 등으로 8600만원을 기부했으며, 매년 6명의 덕진중 학생들에게 72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2025년 올해 어머니의 14주기를 맞은 오성현씨는 '조정희 제자사랑 장학회'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1억 원을 추가로 약정했다.

오씨는 “어머니가 재직 중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을 때, 평소 제자들을 향한 남다른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떠올랐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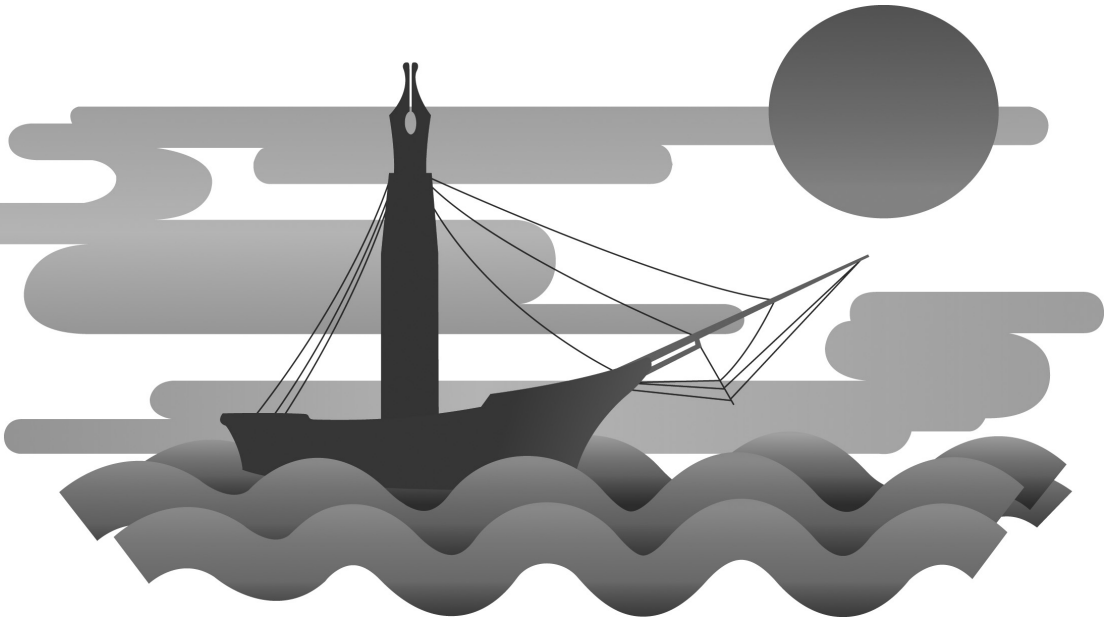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에 정진하는 학생들에게 작은 힘이 되고, 하늘에서도 어머니의 가르침이 학생들에게 새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장학회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고 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스승의 제자 사랑 정신을 오래도록 기리고자 하는 아들의 숭고한 마음이 담겨 있어 더욱 감동을 준다.

오성현 회장의 헌신은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고인이 된 선생님의 가르침을 영원히 빛낼 것이다. 장학기금을 투명하게 운영하며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